지난해 지역경기 대기업이 주도

기아차·삼성전자 등 수출 확대로 매출 20% 증가

경영실적 전국 평균 상회…연관 中企 동반 상승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지역 대표기업들의 매출 상승이 연관업체 동반 상승으로 이어져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기업 경영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경기회복과 맞물려 지역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성장성과 수익성·안정성 지표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5월 23일~ 6월 30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소재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법인 기업 63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광주·전남지역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은 지난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0.4% 증가했다. 또 총자산과 유형자산은 전년 말 대비 각각 12.9%, 8.0% 증가했다.

수익성은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8.0%와 8.7%로 전년대비 각각 1.2%포인트, 1.6%포인트 상승했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외 수지 비율도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96.5%에서 91.7%로 개선됐으나 차입금 의존도는 20.7%에서 23.6%로 상승했다. 이는 석유 정제 업종에서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차입금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광주·전남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23.5%)과 총자산증가율(13.3%) 등 성장성 지표는 전국수준(각각 17.5%, 11.7%)을 상회했으며 유형자산증가율(7.3%)은 전국(9.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영업이익률(8.3%)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9.0%) 등 수익성 지표도 전국 수준(6.9%·7.0%)을 상회했으며 제조업의 부채비율(92.5%), 차입금의존도(24.0%) 등 안정성 지표 역시 전국(101.5%·25.5%)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지역 대기업이 생산하는 전자부품(62.7%), 고무·플라스틱(37.1%), 자동차(27.5%), 석유정제(26.2%) 등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큰 폭 증가했고, 비제조업에서 건설업은 -22.1%로 크게 부진했지만 도소매업이 20.0%를 기록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고무·플라스틱(-5.5% → 8.1%), 기타 운송장비(5.5 → 15.7%)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크게 상승했으나 건설업(1.9% → 0.0%)은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증가율 및 총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양호했으며 수익성은 대기업이 개선됐으나 중소기업은 항목별로 다소 엇갈렸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다소 악화됐지만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유형자산처분이익 증가 등으로 개선됐다. 안정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대체로 개선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와 북미 수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국내 소비도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의 매출액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역시 판매량 호조에 따른 매출 증가로 연관업체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높은 매출액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아삭아삭 상큼함을 나눠요"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청과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올해 첫 선 보인 아오리 사과를 맛보고 있다. 한여름 가을의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고 해서 '가을의 전령'으로 불리는 아오리 사과는 과육이 단단하고 단맛과 상큼한 맛의 조화가 특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프렌차이즈 선택, 男 '위치' 女 '맛' 중요

대한상의, 소비자 500명 조사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때 남성은 '위치'를 최우선 고려하는 반면 여성은 '맛(품질)'을 가장 따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비자 5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프랜차이즈 이용 때 가장 중시하는 항목으로 남성 응답자 가운데 34.0%가 위치를, 여성 응답자의 25.4%는 맛(품질)을 꼽았다고 2일 밝혔다.

남자는 품질(20.1%), 브랜드(13.9%), 가격(13.5%) 등이, 여자는 가격(23.0%), 위치(21.1%), 브랜드(16.8%)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위치(27.4%), 품질(22.8%), 가격(18.4%), 브랜드(15.4%), 상품종류(6.8%), 교통편리성(6.2%), 위생(2.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매월 1회 이상 프랜차이즈 점포를 찾는 소비자(복수응답) 가운데 편의점(69.4%)을 찾는 이용객이 가장 많았고 미용실(65%), 제과점(61.6%)도 응답비율이 60%를 넘었다.

방문 빈도가 많은 곳은 편의점(월평균 6.4회), 학원(4.4회), 커피전문점(4.3회) 등이었다.

동일 프랜차이즈의 매장별 맛과 품질, 서비스 등의 차이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54.6%의 소비자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8%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너무 많다'고 답했는데, 업종별로는 외식업(50.6%), 서비스업(41.4), 도·소매업(39.4%) 순으로 매장 수가 많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북미 TV 석권

디지털시장 점유율 35%

삼성전자가 북미 TV 시장을 석권했다. 2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상반기 북미 디지털 TV 시장에서 금액기준 점유율 35%, 수량기준 점유율 25.3%로 1위를 차지했다.

평판 TV도 금액 35.4%, 수량 25.4%의 점유율로 1위였고, LED TV와 3D TV도 각각 금액기준 44.1%, 54.5%, 수량기준 32.9%, 53%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로 집계됐다.

스마트 TV가 포함된 IP TV 시장에서도 금액 43.8%, 수량 38.9%로 역시 1위였고, PDP와 LCD TV 시장 점유율도 각각 금액 33.3%, 44.4%, 수량 22.7%, 41%로 1위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PDP TV의 경우 지난 1월 금액기준 44%, 수량기준 41.3%의 점유율로 첫 1위에 오른 이후 줄곧 정상을 유지, 처음으로 반기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또 프리미엄급인 50인치 이상 PDP TV 시장 점유율도 금액 49.2%, 수량 47.2%로 1위에 올랐고, 40인치 이상 LCD TV도 금액 40%, 수량 33.9%의 점유율로 역시 1위였다. /연합뉴스

예보, 저축銀 검사 기능 강화

금감원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내실화

앞으로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을 위해 재교육·퇴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금융위 내에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가칭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했다. TF에 따르면 금융 감독·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예보에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TF는 이와 함께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를 개선, 최대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금융위 임명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TF는 이와 함께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방안도 내놨다.

현행 재교육·퇴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감원장 책임하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재산등록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 제한을 강화,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코스피 51P 폭락…2,121,27 마감

미국 부채협상 타결로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더블딥(경기 회복 후 다시 침체) 우려로 하루 만에 폭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커져 아시아 증시도 동반 급락했다. 한국은 하락 폭이 가장 컸다.

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1.04포인트(2.35%) 하락한 2,121,27에 장을 마쳤다. 이날 하락 폭은 지난 5월23일(2.64%, 55.7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연합뉴스

외국계 은행 순이익 44% 급감

37개銀 5385억원…전년보다 4012억 줄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계은행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37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당기순이익은 53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9397억원)에 비해 4012억원(43.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상반기 3464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유가증권 투자에서 시중금리 상승의 여파로 유가증권 평가액이 하락하고 매매이익이 감소해 262억원의 적자를 봤다.

또한 외은지점들은 유가증권 이자수익 감소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1조3456억원)에 비해 이자이익이 2천191억원 줄었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에선 외화차입금에 대한 거래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손실폭이 1037억원에서 426억원으로 개선됐다.

37개 외은지점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곳은 2개였지만, 올해 상반기엔 6곳으로 늘었다.

은행별로는 파생상품과 유가증권 투자중심의 외국계 투자은행(IB) 16곳은 당기순이익이 61.8% 급감했지만, 대출채권과 외국환 업무중심의 기업대출은행은 대출이자 증가에 따라 이익이 소폭(8.7%) 늘었다. /연합뉴스